

Solvay, VCM 11만톤 증설계획

브라질에 PVC 4만톤도 ... IPCL도 PVC 15만톤 증설 프로젝트

Solvay의 브라질 자회사인 Solvay Indupa do Brasil이 4500만달러를 투자해 브라질 Santo Andre 생산단지의 VCM(Vinyl Chloride Monomer) 및 PVC(Polyvinyl Chloride) 생산능력을 증설할 계획이다.

VCM 생산능력은 27만톤으로 11만톤, PVC 생산능력은 28만톤으로 4만톤 증설될 것으로 보이며 2005년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Reliance Industries의 자회사인 IPCL(Indian Petrochemical)도 인디아 Gandhar 소재 PVC 플랜트 생산능력을 15만톤 증설할 계획인데, 완공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PCL은 PVC 15만톤 플랜트에서 17만5000톤을 생산해 왔고 Baroda 플랜트에서도 5만5000톤을 생산하고 있다.

Reliance는 Hazira 플랜트에서 PVC 약 30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8/06>